

## 1992년 1월 28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

○ 일시: 1992년 1월 28일(화) 오후 1시 개의

○ 발언자:

-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일본사회당 위원장)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254X00219920128&spkNum=3&current=31>

○ 해제(개요 및 특징)

다나베 의원은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과 관련하여, ‘전쟁책임 문제가 일본 정치 전체의 문제이기에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비롯한 전쟁의 희생자에 대해 일본이 지금 어떤 배상과 사죄가 가능한가’ 등에 대해 총리에게 솔직한 견해 표명을 요구함. 이에 대해 총리는 특별한 언급 없음.

○ 주요 내용 번역

- ▷ **다나베** “(전략)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상 없는 사죄는 위선이고, 사죄 없는 보상은 이해타산에 불과합니다. 전쟁책임 문제는 일본 정치 전체의 문제이기에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비롯해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일본이 지금 어떤 배상과 사죄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야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을 제창합니다. 또 과거의 전쟁책임을 반성하고 평화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의를 국내외에 선언하는 국회 결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